

광주 체벌 없는 학교 만든다

시교육청, 1만3천여 전 교직원 대상 연수

광주시가 일선 학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연수'를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최근 일선 학교에서 체벌 등으로 물의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학교현장에서 체벌 근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1만3천여명에 이르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연수를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달 1일부터 20일간 이뤄지며 일선 교감과 전문교사 등 130여명이 강사로 투입

돼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시 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위해 동영상 강의 자료를 직접 제작했으며 체벌에 따른 학생 피해 사례, 인권 관련 보도내용, 체벌을 대체할 지도방법 등을 소개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 금지는 단순 일 교육감 등 시 교육청의 '인권'이 꽃피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의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올 들어 자율학습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고교생이나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체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모 여고에서는 시험성적이 나쁜 여고생의 치마를 벗기거나 지난해에는 모 여상고 학생들이 과도한 체벌에 항의하며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벌제 중심의 그린마일리지 운영, 학생이 참여하는 생활규정 개정,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등 각종 시책이 곁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윤길 시 교육청 장학진흥과장은 "인권 존중을 위한 학교 전 구성원의 노력이 일선 학교 현장에 아직도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진보연대는 지난달 3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민주주의 파괴, 이명박 정권 심판 촛불집회'를 열었다. 시민 등 참가자 200명이 '살인정권 심판'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채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검찰 책임자 처벌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꺼지지 않은 노前 대통령 추모 열기

대통령 사과 등 촉구

분향소엔 조문 행렬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추모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파문 이후 꺼진 촛불이 또 다시 타오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영결식이 끝난 뒤에도 광주·전남지역에 마련된 일부 분향소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고인의 넋을 기렸다.

광주·전남진보연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주의 파괴, 이명박 정권 심판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촛불집회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자유발언과 노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살인정권 심판' '분쇄 공안탄압' '대통령 사과' 등의 가로 40cm, 세로 30cm 크기의 피켓을 들고 반 조사를 벌여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박진표기자 lucky@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길에서 '고(故) 박종태 정신계승, MB독재 규탄 결의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 집회현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했으나 우려했던 것과 달리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자칫 '제2의 촛불사태'로 번이 될 가능성을 우려, 여론과외에 동봉 서주하고 있다.

특히 영결식 후에도 계속 찾아오는 조문객을 위해 철거하지 않은 일부 분향소엔 조문객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다녀간 조문객은 연 인원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분향소는 이날 오전 10시께 노 사모 회원 등 시민들에 의해 자진철거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소년체전 참가비 유용 의혹

광주 S中, 여자 배구팀 경기 당일 지급

현지훈련 못해 안배

광주 S중학교가 소년체전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 여자 배구팀의 참가비(숙식 비용)를 경기 당일에는 뒤늦게 지급해 사실상 가로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교육청과 시 체육회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체육 끝나후 육성 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교육청과 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제 38회 전국 소년체전에 광주 여자중학부 배구대표팀을 참가한 S중학교 배구팀이 대회 참가비를 지급 받지 못해 미리 현지 적응 훈련을 하

지 못하면서 예선 첫 경기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체육회가 각 참가팀별로 지급하는 대회 참가비(숙박과 식사 등 현지 체류비용)는 선수단 규모에 따라 최소 1주일 전 차등 지급되며, 모두 12명이 참가한 S중 배구팀에는 총 226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학교측은 참가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경기 당일인 지난달 30일 배구 감독에게 일부 금액(17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S중 여자 배구팀은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2박 3일간 목포에서 현지 적응 훈련 등을 계획했으나 무산됐으며, 대회 당일 광주에 있는 학교 숙소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한 뒤 오후 1시에 출발, 오후 2시 30분께 목

포제일고 경기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경기마저 30분 정도 앞당겨지면서 당일 현지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경기장 적응에 실패한 S중 선수들은 경기내내 제대로 힘조차 써보지 못한 채 전북 대표팀에 세트스코어 0-2로 완패했다.

경기 후 S중의 한 선수는 "시합이 임박한 시간에 경기장에 도착하다보니 적응이 쉽지 않았다. 현장에서 조급한 훈련을 했어도 이길 수 있었는 데..."라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S중 배구부 감독은 "학교측에서 경기장이 멀지 않으니, 숙박 등은 필요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여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사용되지 않은 참가비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를 벗어난 만큼 학교에 반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지역 체육계는 "아이들을 위해 지원금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얼마 되지 않는 돈마저 가로챈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진상 조사를 벌여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박진표기자 lucky@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9분 해질 19시 41분 달돋이 13시 29분 달질 01시 06분

출근길 안개 조심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14/30°C
목포	맑음	15/26°C
여수	맑음	16/24°C
안동	맑음	15/26°C
구례	맑음	10/30°C
해남	맑음	12/26°C
장흥	맑음	12/27°C
고흥	맑음	12/28°C
순천	맑음	14/28°C
영광	맑음	14/27°C
진도	맑음	13/26°C
진주	맑음	12/29°C
남원	맑음	10/29°C
속산도	맑음	15/23°C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7/28	17/23	16/28	17/28	16/25	17/27

광신대학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지식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처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조선대 총학, 옛 경영진 관련 교수 4명 연구실 폐쇄

조선대 총학생회와 옛 경영진이 결성한 단체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교수들의 연구실을 폐쇄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최근 "지난달 24일 서구 치평동 센트럴호텔에서 옛 경영진 인사들이 주축이 돼 열린 조선대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공동위원장을 맡은 사범대 이모 교수 등 4명의 연구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옛 재단 측 행사에 참가한 교수들에게 참석 경위 등 질의서를 보냈는데 거부당했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실 안에 공개 질의서와 명명서를 붙이고 밖에서 문을 잠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광운대·조선대·상지대에 이어 세종대에도 임시이사 재파견을 결정, 그동안 정상화 방안을 심의해 온 사학 4곳 모두가 다시 임시이사 체제에 놓이게 됐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1) 227-9940
목포점 (061) 262-9200
속천점 (061) 227-9970

손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리산점 (063) 851-2422

6월 5일 OPEN

아이엘리시아

그림자 없는 건강한 빛을 선사하는 서비스

HAVER 062-677-1199

The One

세계 최고 MBA출신 경영전문가 재혼정보회사 선택한 까닭은?

“인연의 활간실 있는 행복출발 더원 경영진”

더원 by (주)명백출판 www.theone.co.kr ☎ 062)527-3388